

서울에어쇼'98 행사 윤곽 드러나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공항(성남)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에어쇼는 "더 높은 하늘로, 더 넓은 세계로"를 주제로 21세기 선진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국 진입 기반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볼거리와 내실 있는 비즈니스의 장 마련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인 행사준비를 위하여 행사규모와 공식일정 세부 계획을 확정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기상 상태가 가장 양호한 시기를 선택하여 10월 26일부터 4일간은 전문관람객의 날(Business Day)을, 30일부터 3일간 일반관람객의 날(Public Day)을 운영하게 된다. 행사가 거행되는 서울공항(성남)은 3만 4천평의 행사장 부지에 2만 6천평의 야외 전시공간과 3천 5백평의 실내전시공간을 갖추고 20여개국 155업체의 참가와 7개국 13개 기종 70대 항공기의 전시를 목표로 유치활동 중에 있으며, 행사기간까지 유치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장은 참가업체와 업체방문객,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000여명의 안내 및 운영요원들이 투입되고, 등록센터를 비롯하여 비즈니스센터, 의무실, 방송실, 미아보호소, 분실물 보관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중교통과 행사장을 연계하는 셔틀버스의 운행과 대규모 주차장 조성(4,000여대 동시주차 가능)과 진입로 신설을 통해 관람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토록 했다.

현재, 4개의 전시동에 국내 26개 업체, 해외 79개 업체에서 509부스를 신청하였고, 살데 14동을 계약한 상태인데, 이중에는 국내 주요 항공산업체는 물론

미국의 Lockheed Martin, GE, Boeing, 프랑스의 Dassault Aviation, 영국의 BAe, 러시아의 Rosvoorouzhnie, 유럽연합의 Airbus등 세계 유수의 항공산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기관이나 대학, 그리고 외국의 에어쇼 홍보팀도 참가를 신청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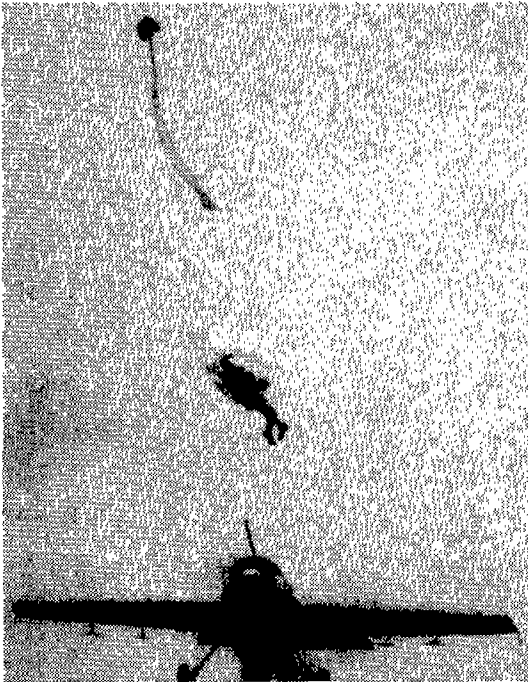
10월 24일 총예행연습이 계획되어 있으며, 행사장 공개와, 전시현황 및 시범비행 내역을 소개를 통해 보도편의 제공을 위한 Press Day를 실시할 예정이며, 25일 저녁에는 국내외의 주요인사와 전시참가기관 주요 임직원들을 위한 환영리셉션, 그리고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막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행사기간중 공군사관학교가 주관하는 국제항공우주심포지엄이 21세기를 대비한 항공 우주력 건설과 기술발전 조망이라는 주제로 롯데월드에서 개최되며, 공군본부 주관의 전자전 모의 훈련 세미나도 행사 기간중 함께 실시한다.

올해 서울국제에어쇼에서 관람객들에게 선을 보일 시범비행 및 지상전시용 항공기들은 공군의 FX 기종으로 물망에 오른 F-15E, Su-37, Rafale 항공기를 비롯하여 F/A-18, MIG-29 등의 첨단 전투기와 수직 이착륙기인 해리어(AV-8 II), Mi-24, AH-64, Bo-105 등의 전투 헬기, Challenger



B-2 폭격기는 스텔스 기능을 가진 미국이 자랑하는 폭격기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국제에어쇼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국제어쇼에서 시범비행에 참가할 Su-29. 실제 조종사 대신 Dummy가 조종석에서 사출되어 낙하산이 산개되기 직전의 모습

604, Falcon 900EX와 같은 Business Jet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현재 유치를 추진중인 스텔스 폭격기 B-2의 참가가 확정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앞선 형태의 항공기를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며,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의 Su-29 경훈련기가 참가하여 관람객들에게 기동 중 비상탈출하는 모습을 펼쳐 보이는 등 '96년 에어쇼와는 달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그 동안 위기상황 발생시 조종사는 조종석과 함께 탈출하여 좌석충돌 등의 위험이 다른 기종한테 있었으나, Su-29는 조종석과 분리되어 조종사만 탈출하게 고안되었다. 이러한 비상탈출 시스템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어 '98 서울국제에어쇼를 통하여 국내에서는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 공군의 훈련기로 사용될 KTX-1이 최초로 공중 시범 비행을 계획하고 있는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될 것이다. 현재 서울에어쇼'98 행사 준비는 Master Plan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26일 그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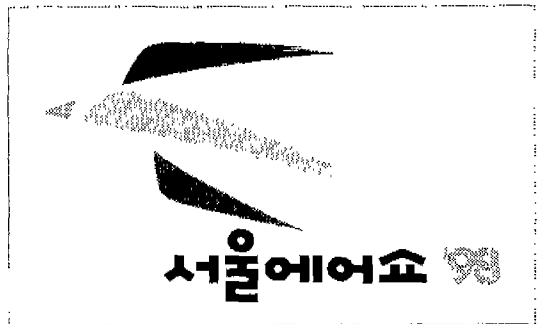
서울에어쇼 엠블럼 설명

● 형태 및 상징적 의미

항공을 상징하는 비상하는 새의 모습에서 디자인 모티브를 찾았으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적 행사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국적 붓 터치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엠블럼을 구성하는 4개의 면은 각각 종이비행기, 비행기의 동체, 양 날개를 상징하며, 최대한 동감을 강조하였다.

● 응용적 측면과 칼라 설명

엠블럼은 행사 장식물 구석에 위치하는 단순한 심벌마크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 즉, 그 자체로서 행사를 대표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어플리케이션의 융통성에 있다. 엠블럼의 칼라는 한국적 이벤트를 상징하도록 한국의 대표적 색인 황, 청, 적으로 기본 구성하였으며, 하늘(에어쇼)을 상징하는 하늘색을 가미하여 에어쇼의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우리협회 창립 6주년 기념 행사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우리협회는 오는 9월 3일(목) 신라호텔에서 약 150명의 사업계, 관계, 학계, 연구계 등의 관련인사를 초청하여 한국항공우주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의 후원하에 창립6주년 기념 행사 및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의 행사는 「항공우주산업, 21세기를 연다」라는 주제로 침체된 국내항공우주산업의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며, 21세기를 대비한 항공우주산업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장이 될 것이다. 아울러 10월에 있을 에어쇼행사의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이벤트로 활용할 계획이다.

본 행사는 산업유공자 표창에 이어 제1부에서는

항공우주산업 구조전망과 산·관 협력방향, 2부에서는 미래 자유세계의 군사력발전 요구사항, 제3부에서는 한국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하에 각각 주제발표 및 패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국의 저명 연구기관인 McKinsey, RAND사 등의 분야별 전문가와 Charles Horner 미 공군 예비역 대장 등 세계 항공우주관련 전문가 약 10여명과 우리나라 각계의 항공우주 전문가 약 10여명이 주제발표 및 패널 토론자로 참석 열띤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본 심포지엄 행사후에 이은 Reception에서는 국내외 각계 인사간의 교류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하는 서울에어쇼'98 과 최신에 전투기 F-22의 소개 비디오를 관람하게 될 것이다.

삼성항공, 헬기동체 3억달러 수주

삼성항공은 최근 세계 최대의 헬기 제조업체인 미 벨사로부터 3억 달러 규모의 SB 427 헬기동체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동사는 SB427 헬기 동체 740대 분을 오는 '99년 초부터 2013년까지 벨사의 캐나다 생산법인에 공급하기로 하고 올 연말까지 생산 치공구 제작 등 양산 준비를 완료해 내년부터는 경남 사천 공장에서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SB427 헬기는 삼성항공과 벨사가 국제공동개발 사업으로 개발하는 8인승 쌍발헬기로 지난 96년 개발을 시작해 지난해 11월 시제기 제작을 완료하고 현재 미 캘리포니아에서 시험비행중인 상태이며 올

연말 미 FAA(연방항공국)인증을 획득하여 내년초부터 고객에 인도될 예정이다. 또한 동 헬기의 대당 가격은 약 2백만달러로 경쟁기종에 비해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어 세계 동급헬기 시장의 50%를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항공은 동 헬기 개발을 위해 96년 4월부터 설계팀을 벨사에 파견해 공동 설계에 참여해 왔으며 동 사측 개발부분인 후방동체(Tailboom Structure) 부분은 지난해 8월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에 성공하였다.

동사는 기존의 KF-16 생산 뿐만 아니라 SB427 헬기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설계 생산, 인증 및 판매 그리고 운항에 이르기 까지 전 부문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에어버스와 보잉사, 상반기 수주증가

에어버스와 보잉사는 아시아의 경기후퇴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하반기 시장을 주시하면서도 1998년 상반기 동안 주문이 급격히 증가되는 현상을 맞이하였다.

두 회사를 합쳐,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의 거의 2배인 550대가 주문되었고, 연말에는 1,000대 이상 주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경기 침체의 영향이 양사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되풀이 되는 인도연기로 인한, 가장 크고 뚜렷한 손실은 보잉737 2대, 보잉777 2대, 에어버스 A321 6대의 인도 취소 뿐이었다. 이는 올해 다른 지역 주문 증가로 인해서 보상되었지만, 내년엔 또 다른 인도 연기가 예상된다.

한편, A320에 대한 주문은 주로 라틴아메리카의 비행사인 Sabena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급격한 주문량의 증가는 상반기 동안 에어버스 기종이 보잉사 737보다 우세 하였을뿐만 아니라 유럽의 제작사들이 그 기간동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 에어버스가 6개월 동안 단지 80대 수주한 예년과는 정반대의 일이다.

새 A340 기종은 에어버스로 하여금 폭넓은 판매를 가능케 하였다. 보잉사의 실적은 전적으로 737 기종의 판매에 달렸는데 일련의 거래는 South West Airline에 의해 이루어졌다. 777에 대한 많은 미국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잉기종의 주문잔고는 올해 초부터 줄어 들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보잉과 에어버스의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보잉은 아시아 경제의 하강에 대응하여 747과 777의 생산이 감소될 것에 대비하여 그에 따른 약 12,000명 대량감원을 계획

〈상반기 생산, 수주, 잔고현황〉

구분	인도	수주	취소	순수주	주문잔고
에어버스					
A300-600R	2	0	0	0	18
A310-300	1	0	0	0	6
A319	25	111	-6	105	386
A320	39	106	7	113	368
A321	23	30	-12	18	138
A330	7	11	1	12	167
A340	13	29	-3	26	90
합계	110	287	-13	274	1,173
보잉					
737-3/4/5	67	10	-6	4	97
737-6/7/8	50	188	0	188	887
747	21	9	1	10	148
757	25	5	0	5	113
767	25	8	-2	6	122
777	37	26	2	28	251
합계	225	246	-5	241	1,618
더글라스 생산품					
717(MD95)	0	5	0	5	55
MD-11	6	7	0	7	15
MD-80	3	24	0	24	31
MD-90	14	0	-1	-1	53
합계	23	36	-1	35	154
보잉전체합계	248	282	-6	276	1,772
총계	358	569	-19	550	2,945

하고 있다.

지난해 밝힌 1999년 보잉의 공식적인 생산량 집계는 현재 한달에 5대의 747생산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3.5대로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인한 항공사들의 주문감소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보잉은 생산문제를 극복한 후, 777의 한달 생산이 7대에 이르렀으나, 1999년까지는 5대로 다시 감소시키고 2000년에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다.